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컬렉션 재일디아스포라작가전 '김영숙-삶, 그리고 해후'가 오는 10월 29일까지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된다.

피로 연결된 조국 한국 태어나고 자란 모국 일본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컬렉션 재일디아스포라 작가전 10월 29일까지 '김영숙-삶, 그리고 해후' 50여점 소개

"우주에서 생명을 받아 그림을 그리는 사명을 얻은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작품 활동을 하였다."

재일디아스포라 작가 김영숙의 말이다. 재일동포 3세대 작가인 그의 작품세계는 여느 작가와는 다르다. '피로 연결된 조국 한국, 태어나고 자란 모국 일본'이라는 두 개의 나라를 토대로 발전했다.

김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업은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그냥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주에서 생명을 받는데 사명까지 얻었으니 일상의 '발발'이 오는 분명 차원이 다를 것이다.

작가의 말을 상기하며 둘러본 전시장에서 앞서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의 작품은 분명 여느 작가와는 다른 아우라를 환기한다. 재일디아스포라 작가라는 '선입견'을 제하고 보더라도 그렇다. 화려하면서도 화사하며, 차분하면서도 서정적이다. 가벼운 듯 하지만 깊이가 있고, 정적이면서도 동적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이 기획한 하정웅컬렉션 재일디아스포라작가전이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0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주제는 '김영숙-삶, 그리고 해후'. 이번 전시는 하정웅컬렉션 2603점 가운데 김영숙 작가의 50여 점을 소개하는 자리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는 타 국가와 민족에 의해 강제적 이주, 이산이라는 의미를 함의한다. 그 가운데 재일동포 디아스포라는 식민지 지배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남게 된 강제적 이주와 후손들을 지칭한다.

재일동포 3세대 작가인 김영숙은 고려미술회, 공모전, 여류화가협회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작품은 대부분 아름다운 여성이 등장한다. 아울러 평화로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조화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사실적이면서도 세밀한

터치는 보는 이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재일동포 3세대 태어나 자란 김영숙의 작품 세계를 담은 작품일거라는 생각은 이번의 단견이었다. 그저 화면 속 여성들은 '무표정'하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다. 한편으로는 담담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디아스포라의 흔적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견고히 밀고나가는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사유가 배어나온다.

김영숙의 작품 세계는 크게 두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근원적 자아를 찾는 90년대까지의 시기, 2000년대 이후 삶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2000년대 이전 작품은 인간의 삶, 생명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특히 '사람은 왜 살고 있는가?'에 관해 자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어디서 태어났으며 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에 관한 탐색이 주 내용이다. 이러한 물음은 자연스레 우주에서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작가의 삶 자체가 작품의 주제로 전이되었음을 보여준다.

1998년 작 '기억속의 바다'는 화면 중앙에 여성이 등장하고 머리 위로 커다란 물고기가 유평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자세히 보면 여성의 반대편에는 동일한 여성의 실루엣이 드리워져 있다. 작가의 '기억이라는 바다'에 드리워진 삶과 만남, 자연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작가는 "제한된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과 자연을 접하고 내가 느끼고 얻은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인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는 내 자화상이며,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바다, 들뜬 화초, 개와 고양이, 새들도 그랬고 아니면 그때의 나는 한바탕 바람이었는데도 모릅시다"라고



'기억속의 바다'

연급한 바 있다.

2002년 작 '해후'는 서로를 마주보는 두 여성을 그렸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것을 해후라 한다. 작품은 과거와 현재 또는 현재와 미래의 여성이 다시 만나 상대를 바라보는 장면을 초점화한 것이다. 동일인인 듯 동일한이 아닌 듯한 두 여성은 낯은 대문, 오래된 담이라는 배경 탓에 만남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작가의 이후 작품세계는 여행을 통해 깨달은 삶에 관한 생각이 모티브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여행을 회상해 그린 작품은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의미를 되짚고 있다.

또한 2층 공간에는 이탈리아 등 유럽 여행에서 그린 수채화 10점과 누드 드로잉, 판화 18점도 전시돼 있어 작품 세계를 좀더 확장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오병희 학예사는 "김영숙 작가 작품에 흐르는 근본적인 내용은 삶을 관조해 환희와 희망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시공을 넘어선 순수한 영혼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일동포 3세대 디아스포라 작가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8월호

예향



잠껏 숨쉬며...우리는, 지금 여행 간다 '문장노동자' 장석주 시인 '예향 초대석'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다. 산이나 바다, 휴양림, 호캉스, 어디든 떠나야 할 것 같은 날씨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8월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집 '우리는, 지금 여행 간다'를 준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코로나19' 발생 3년 4개월만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TV에서는 연일 여행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여행 크리에이터의 인기도 연 예인 못지않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휴가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동안의 '집콕'이나 '랜선'을 탈피해 '나만의 휴(休)'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자.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문장노동자' 장석주 시인이다. 시인은 스스로를 '날마다 읽고 쓰는 사람', '문장노동자'라고 표현한다. 등단한 1975년부터 올해까지 꼬박 48년 동안 시집을 비롯해 110여 권의 책을 냈다. 최근에는 언론에 '예향'을 소개하며 '예향'을 읽는 '오우'를 소개하기도 했다. "책들을 읽고 사유의 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해집으며 심연으로 침잠하는 시간은 행복했다"고 말하는 장석주 시인을 만나 책읽기와 글쓰기에 대해 물었다.

'우리 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는 8월 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다. 광주-전남에는 작지만 색다른 미술관이 있다. 내로라하는 명작들이 많은 유명 미술관과 비교할 수 없지만 지역 작가들의 대표작과 차별화된 기획전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첫 공간은 전곡구 브랜드 축제로 자리잡은 함평·비추체의 또 다른 명소인 함평군립미술관이다.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이 찾아간 곳은

'마련의 심장·생태 힐링도시' 영암이다. 월출산과 '기찻길', '기찻랜드', 구림 전통마을, 도갑사... 영암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찾아 한여름 힐링여행을 떠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에 터를 잡고 로컬브랜드를 탄생시킨 삼호주조장과 초록 F&B도 둘러본다.

특별기획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는 낭만항구의 야경 속으로 떠난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한낮을 비켜 해넘이 후의 야경나들이를 나서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항구도시 목포의 야간관광이 안성맞춤이다. 목포 삼학도 크루즈의 야간 선셋투어와 선상 불꽃투어를 통해 목포의 야간관광과 일몰, 불꽃놀이를 함께 즐겨보자. 삼학도 항구포차와 해상W쇼, 야간 시티투어, 남진야(夜) 시장, 간객'토야호(土夜好)까지 즐기려면 2박3일도 부족할 것 같다.

'신전남관광여지도'는 남도의 정원을 둘러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무엇보다 정신건강을 위해 자연 속에서 힐링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정원치유에 대한 관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전국구 관광명소가 된 전남도 민간정원을 둘러본다.

'호남의 누정' 두 번째 이야기는 공동체 규율을 만들고 강학을 펼친 광주향약의 시원지 부용정이다. '지중해의 낭만 휴양지' 나폴리와 '지상 낙원' 카프리스, 도시 곳곳을 건축·음악·조형물로 가득 채운 핀란드 헬싱키의 거리 미술관,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으로부터 '전반기 기량이 가장 성장한 선수'로 뽑힌 이우성과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당신이 답이다

도립국악단, 12일부터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시즌 3'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 이하 국악단)이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시즌3 '당신이 답이다'를 오는 12일부터 11월 25일(오후 4시)까지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시즌에는 한국사 강사부터 작가, 시인까지 다채로운 강사진과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먼저 오는 12일에는 한국사 강사로 알려진 황현필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나와 당신의 오늘은 겨저 연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역사를 통해 들여다보는 현대사와 한국사의 질곡들을 살펴본다.

공연 프로그램으로 무용극 '봄날(안무 김유미)', 국악 실내악 '미로(작곡 안은경)', 타악 앙상블 '타인공간(구성 송병관)' 등을 곁들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어 9월 23일 같은 시간-장소에서 '결국은 말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원국 작가가 무대에 오른다. 강 작가는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더렐)', '강원국의 진짜 공부(창비교육)' 등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날 공연에서는 삼도사물놀이와 판소리 합창 '범피중류', 국악 실내악 등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시즌1에 이어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다'



황현필

강원국

는 주제로 정호승 시인도 만나볼 수 있다. 정 시인은 '슬픔이 택배로 왔다(창비)',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김영사)' 등을 출간하며 희망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을 써왔다. 강연과 아울러 컨템포러리 아쟁산조부터 타악과 '미래의 기억(구성 임영호)', 대금 연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끝으로 11월 25일에는 유시민 작가가 관객들을 만난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주제로 눈앞에 다친 융복합 사회 등에 대한 강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컨템포러리 판소리 '발타랑'과 설장구 협주곡 '마침내 바다' 등이 예정돼 있다.

관람료 1만 원. 관련 사항은 국악단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무등산자락 한 바퀴...누정을 누비다

예락 '무등, 누정을 노래하다' 7일 광산문화예회관 무료 공연

우리나라 국토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취미를 가진 한 부부, 어느 날 이들은 우연히 연고 없는 광주에 도착한다. '무등산 수박' 말고 광주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부에게 광주는 낯설 뿐이다. 이곳저곳 광주를 둘러보던 이들은 과거 학문에 힘쓰던 옛 호남 문인들의 흔적인 '누정'을 둘러보며, 점차 광주의 운치에 빠져든다.

예술가집단 '예락'은 '무등, 누정을 노래하다'를 오는 7일(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연다. 무대가 펼쳐지는 배경은 무등산자락을 한 바퀴 휘돌아간다는 뜻의 무등길을 형상화한 세트장.

남도 누정이 밀집돼 있는 무등길 일대는 시인이나 묵객(墨客)이 거쳐 간 가사문학의 요람이었다. 이번 공연은 고려 인종 때의 어의 장경공 최사전과 그의 다섯 후손들을 배출한 서원 '무양서원'을 조망한다. 작품은 국악실내악곡 '무진에 별이 뜨니'를 선보이

며 산수화와 무양서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또 '시화를 읊다'를 통해 시문을 읊던 선비들의 풍류정신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백당'도 작품 속에 담아낸다. 광주시 기념물 제1호로 송강 정철이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자, 나주 목사를 지낸 김윤제가 낙향 후 누정을 짓고 후학을 양성한 곳이다. 환백당을 주제로 2인 장작무 '성산별곡'과 3인 혼성 창작무 '신선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8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칠정'을 논했던 '월봉서원'도 작품의 모티브가 된다. 월봉서원과 관련된 시들을 엮어 호남 문인들의 학문 탐구와 자연과의 합일정신 등을 드러낼 계획이다.

무료 공연. 공연 문의는 예락이나 광산문화예회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장 취임

국립나주박물관은 31일 신입 국립나주박물관장에 김상태(사진)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입 관장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강원대 사범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업무를 시작해 유물관리부, 고고부, 전시팀을 거쳐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장,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하는 등 고고학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 동경대 인문과학대학원 고고학연구실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했다.

최근까지 국립춘천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을 역임했다.

한편 은하수 전 관장은 국립부여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